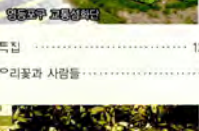


CONTENTS

꽃이 피었습니다.	1 2 3
갤러리	4 5
초이스	6
스토리	7
증포커스	8 9
새 판목소개	10



▲이른 봄 토양이 없는 세종로 사거리 교통섬에 새로운 개념의 화단을 조성하였다. (3월 22일)

2010년 3월 20일 세종로 사거리에 꽃이 활짝 피었다.

일반적인 가로 화단의 경우 화사하게 감상가능한 시기는 빨라야 4월 10일을 전후해서야 그나마 피복된 가로 화단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늦서리의 피해를 받기 십상이라 담당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사량(沙量)을 받게 된다. 그런데 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토양이 없는 세종로 사거리의 교통섬에 새로운 화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청계광장과 의회백면까지도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나 일반적인 랜지, 패슈니아가 아닌 아주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 패턴에 있어서도 지금 까지 보아오던 형형색색의 열식이 아니라 파스텔 톤의 혼용식재이다. 지나시는 시민들은 이내 호기심과 아름다움에 휴대폰에 담기고 하고 특히 청계광장은 새로운 포토존이 되었다.

4월이 되면서 같은 현장에서 색이 다른 그리고 입체적인 정관 정원으로 변화더니 5월이 되면서 가로화단에는 지금까지 잘 볼 수 없었던 금영화를 비롯 양귀비의 여러종류와 수레 국화 등이 피어나고 6월 월드립의 함성과 붉은 티셔츠와 함께 광장과 가로화단이 양귀비의 매혹적인 붉은 색으로 들불처럼 피었다.

이 새로운 가로화단은 2010년 11월 11~12일 양일간 한국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좌장으로 치러지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시범 가로를 우리꽃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 G20은 벌써 2월 부터 한국과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작되었고 본회의에 앞서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사전회의들이 진행되는 행사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큰 획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가로 사업은 한국의 도시 가로정원의 한 시범 모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모를 통해 각계의 전문가와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최종 우리꽃과 설계를 담당한 (주)채움조경기술사무소(대표 김병재)의 공동작업에 의해 선정되었다.

2009년 늦은 가을 비닐하우스에 가운을 시작하고 크로커스, 무스카리, 튜립 등 추식구근과 함께 꽃잔디, 안개초, 금영화, 양귀비, 수레국화 등의 월년초 혼합종을 뿌려 재배를 시작 했다. 그러나 2010년의 겨울은 참으로 꽃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주

었다. 지속되는 호한날과 추위 그 눈이 예년의 겨울과는 사뭇달랐다. 농촌의 여기저기에서는 겨울 농사를 망쳐 국가에서 급기야 재해로 인정 보상까지 한 한해였다. 2면에서 계속



▲ 돌림 첫 개화를 지나 지금까지 보아왔던 열식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선보이는 파스텔톤의 입체적인 정관정원으로 변하고 있다.(4월 13일)



▲ 5월이 되면서 여러 양귀비종류와 수레국화 등이 피어나고 6월에는 붉은 양귀비로 완전히 변모한다.(5월 23일)



▲ 서울시 각구별 조경관련 담당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조경과에서 주최하는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2010년

2월이 되어 생육환경은 너무 불량하고 자람이 더디 시범가로사업에栽植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안달이 났다. 급기야 예비용 상자화분을 다시 2백로 늘려 재배하기로 하고 따뜻한 전남해남에서 양귀비 등의 월년초를 육묘하고 전주에서 꽃잔디 매장을 구입해 전원 피복식재를 하였다. 일반 소매상에 봄에 판매하기 위해 비축한 추식구근 등을 수소분한 결과 겨우 그 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도 혹시 불안해 초화능가의 하우스를 수소분해 고급색이 좋은 오스테오스펠름, 라던큐러스, 데모로호제가 그리고 파스텔톤의 비올라를 구해 상자에 증분해서 식재했다. 이때 이미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였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는 지금까지 지켜온 신뢰와 또 새로운 패턴으로의 전환, 새로운 가로정원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꿨던 우리꽃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특히 하나하나 디스플레이를 해가며 심어야 하는 상자재배이기에 일반적인 인부를 시켜 작업할 수 없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 전 직원이 동원되어 식재하기도 했다.

하우스의 온도를 최대한 올리고 3월을 맞았다. 그리고 3월 15일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 온도를 점점 내려 외부기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꽃이 특허를 받은 저수용 상자재배시스템으로 인공구조물 위에 저수 라이너와 배수와 저수가 가능한 받침대를 깔고 땅근부직포를 깔 다음 미리 재배, 준비된 꽃상자를 종류와 화색을 보아가며 깔아 놓고 마치 막 경계부는 합석 갈바를 이용한 틀에 물잔디로 마무리 했다.

동시에 벽화수를 이용하여 가로중앙분리대의 수직정원이 연출되었다. 승레문에서 서울광장에 이르는 중앙분리대의 기둥을 이용 좌우측에 벽화수를 붙이고 자동관수를 위해 놓여진 물통을 감싸고 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전지를 이용 에너지를 해결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위에는 세종로 사거리



▲ 의회백면에 설치된 화단(4월 16일)



▲ 송림로에서 서울광장에 이르는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벽화수(4월 20일)



▲ 이른 봄 시범가로사업의 화단에 단장되기 위해 하우스에서 미리 상자 재배되고 있는 모습



▲ 서울특별시 조경과에서 주최하는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2010년



▲ 서울특별시 조경과에서 주최하는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2010년

리에 깔았던 식생상자를 배치하여 화려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4월 20일 조성된 광화문광장은 우리꽃이 1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풀어놓는 광장정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주테마는 혼합, 혼성식재를 통한 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까지도 감상가능한 정원을 꾸미는 것이었다. 특히 잦은 교체에 의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광장의 역할을 동시에 녹여내야 한다는 명제를 풀어야 했다.

전체 잔디광장의 10%의 면적은 남기지 않고 시민들이 사방에서 감상 가능해야 하며 식물의 교체는 최소화 하고 관리가 어렵지 않아야 한다. 무엇



▲ 서울시 각구별 조경관련 담당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조경과에서 주최하는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2010년



▲ 광역시 조경관련 담당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조경과에서 주최하는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2010년



▲ 파란 잔디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한 광화문광장에서 꽃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 형형색색의 다양한 세덤으로 만든 화단



▲ 숙근초와 일년생이 조화롭게 식재되어 있어 숙근초사이로 양귀비가 6월에 개화한 모습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다. 착생매트와 포트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우리꽃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주어진 명제와 더불어 많은 교수님과 관련전문가들의 요구도 담아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시작된 현장은 사실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너무도 힘든 일들이 많았다. 기상이변이 그렸고, 이른 봄, 숙근초의 포기는 작았다. 그리고 효과는 바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유로 현장 담당 공무원의 땅 피복에 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년초를 많이 적용해야 하고 아직 순이 작은 숙근초의 개체수를 매우 늘려야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종류를 적용해야 가을 까지 아름다운 정원연출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많은 종류를 적용하고 식물의 다른 종들과의 간격은 넓혀 줄 것인가를 고민했다. 사실 뻔뻔하게 심어 이른 봄부터 땅을 보이지 않게 적용하면 가장 편하다. 그러나 이를 다음에 필 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폐화되었을 때 나타날 썩어먹은 듯한 모자이크 부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숨기기 시작했다. 아직 순이 작은 숙근초를 빨리 베

화할 일년초 밑에 숨겨 식재했다. 그리고 식물과 식물의 사이는 키작은 일년초를 시간에 따라 누르고 올라설 수 있는 다년초들로 배치했고 또 포인트로 장기 개화형 숙근초를 테마별로 중심배치 했다.

또 겨울의 경관 연출에 대한 고민을 그라스와 식물의 유카 등으로 겨울 분위기를 예측, 포인트를 주었다.

5월 5일 광화문의 광장은 파란 잔디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으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웃음을 마듯한 햇빛처럼 받았다. 6월의 청계광장과 세종로의 붉은 양귀비의 아름다움과 함성은 월드컵 16강 진출과 함께 빛났다. 결론은 우리의 가로 화단은 너무도 획일화된 식재 패턴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식물의 안정된 품과 특성을 연출기법에 녹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콩나물 시루의 콩은 철대로 새로운 콩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과 선과 면으로 연출하는 방식은 행사나 축제, 작은 테마에나 쓰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가로 화단에도 이제는 단순한 평면배식에서 떠나 수직의 배식으로 다양성의 배식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고급화되고 풍성해지는 정원으로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광화문광장으로 나서보자.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변화와는 정반대로 기대하면서 말이다.

세종로에 광화문에 새로운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6

달개비 레드그레이프

Tradescantia 'Red Grape'
달의장풀과. ☀️ 🌑



자주색의 달개비, 축축하고 밝은 토양 혹은 반그늘에 좋다. 햇빛이 너무 강한 곳에서는 잎 끝이 약간 마를 수 있고 매일 아침에 피는 꽃은 해가 강한 오후에는 빨리 시들 수 있으므로 약간의 차광이 된 곳에 식재하면 좋다. 혼합식재의 소재로 매우 좋다. 반그늘의 숲 가장자리 혹은 아파트 단지의 반음지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 물을 적절히 주고 영양제를 1달에 1회를 주면 더욱 큰 꽃과 많은 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리아트리스

Liatris spicata
국화과. ☀️



혼합식재는 물론 대 군락 단일 식물로도 훌륭하다. 이색적 이면서 한국정서에 알맞은 꽃방망이. 긴 꽃대는 아름다운 꽃방망이를 연출한다. 구근형태의 뿌리로 인해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양지에 심어야 하며 꽃이 끝에서부터 피어 내려온다. 내한성이 강하고 강건하지만 너무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는 피하는 게 좋다. 물 빠짐이 나쁜 토양에서 겨울습기로 인한 구근의 부패와 고사의 원인이 된다.

속근왜성천인국

Gaillardia aristata 'Bicolor goblin'
국화과. ☀️



색이 매우 독특하고 화려하므로 길가교통이 빈번한 곳에 좋다. 대 면적 군락 재배시 매우 화려하여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꽃이 5월부터 장기간 개화하므로 혼합식재에 적용하면 좋다. 대체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공원 등의 화단 테두리식물로 좋으며 근삼으로 증식한다. 꽃이 장기간 개화하므로 꽃이 진 고투리는 제거 하는 게 미관상 좋다.

무늬꽃범의꼬리

Physostegia virginiana 'variegata'
꿀풀과. ☀️



일반적인 꽃범의꼬리의 잎에 밝은 무늬가 있어 여름에 시원한 느낌이 든다. 지하경을 가지고 번지는 생육형으로 대 면적 군식에 유리하다. 생육이 강건해 관리가 용이한 양지 식물이다. 비옥하고 습기가 있는 토양을 좋아 한다. 대체로 병해충에 강하다.

무늬여우꼬리그라스

Alopecurus pratensis 'Variegatus'
벼과. ☀️ 🌑



잎에 진한 노란 무늬가 들어간 식물로 키는 30~35cm까지 자란다. 생육이 강건해 사방용으로도 좋다. 양지에서 반 음지 까지 생육가능하다. 물 빠짐이 좋은 곳을 좋아하고 포기 형상이 좋아 암석가든 용으로도 좋다. 이른 봄 전년에 무성한 잎을 제거 해 주면 더욱 빠르고 좋은 색의 잎을 볼 수 있다.

사포나리아 코튼

Saponaria officinalis
석죽과. ☀️



항기가 전체 정원이 항기정원이 된다. 특히 흰 꽃이 피는 코튼의 경우 솜과 같은 하양의 항기덩어리다.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배수가 불량한 곳은 여름장마기 때 생육이 매우 불량하다. 암석가든 혹은 돌담장 옆에 이루어진 화단에 적합하다.

수레동자꽃

Lychnis chalcidonica 'Maltese-cross'
석죽과. ☀️ 🌑



초기가 60~70cm까지 자라는 동자꽃으로 주역모양의 빨간색 꽃이 여름에 핀다. 대체로 양지를 선호하지만 활엽수 반음지에서에도 강한 편이다. 간혹 여름 건조가 심한 경우 잎이 낙엽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나리, 리아트리스 등과 같은 품을 형성하는 식물과 혼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스타치스 휴멜로

Stachys monieri 'Hummelo'
꿀풀과. ☀️



향이 있는 식물로 벌과 나비가 좋아한다. 햇빛을 좋아하므로 물 빠짐이 좋은 양지에 재배한다. 햇볕이 부족할 경우에는 마디 사이가 길어져 쓰러질 수 있다. 겨울철 물이 차거나 눈에 의한 물이 고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아스타 제니

Aster novi-belgii 'Jenny'
국화과. ☀️



많은 아스타 품종 중 왜성 종으로서 키가 작고 꽃이 길며 매우 많은 꽃을 가지는 품종이다. 화색은 짙은 분홍으로 가을에 많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봄에 미리 식재하여 포기를 기우는 것이 좋다. 포기를 형성하여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혼합식재 혹은 비 관리지역에 대 면적 군식을 하는 경우 등에도 좋다.

애기노랑금계국

Coreopsis verticillata 'Creme Brulee'
국화과. ☀️



5월 말부터 10월까지 노란색 꽃이 장기개화한다. 키는 30~40cm로 일반적인 금계국보다 키가 작으나 꽃이 많이 피는 다화성 품종이다. 봄에 1차 개화한 꽃이 지고나서 꽃대를 커팅해주면 바로 꽃대가 올라와 연속적으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억새 파랑새

Miscanthus sinensis 'Adagio'
벼과. ☀️



이삭의 높이가 100~120cm 정도로 키가 작은 억새 중 하나이다. 잎이 가늘고 피란색을 띄고 있어 고급스럽다. 잎 사이의 간격이 짧고 포기가 조밀하여 풍성한 느낌을 들게 한다. 겨울철 과도한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고 너무 일찍 줄기를 자르면 동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봄에 커팅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지피속근코스모스

Coreopsis rosea 'American Dream'
국화과. ☀️ 🌑



분홍색의 양홍이는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장기간 개화하는 품종으로 하늘거리면서도 조밀한 연녹색 깃털 같은 잎은 암석정원의 포인트로 아름다우며, 생장이 왕성하여 지피식물로도 효과가 좋다.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은 품종이 다양하다. 건조와 열을 피하고, 배수가 잘되며 토양수분이 적당한 곳에서 최적으로 생육한다.

헬레니움

Helenium hybrid
국화과. ☀️



원색에 가까운 화색으로 그 색이 매우 강렬하다. 토양을 별로 가리지 않지만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국내에는 최근에 알려진 식물로서 혼합식재 여름 포인트 식물로 좋다. 우리꽃에서는 네 가지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하코네클로아

Hakonechloa macra
벼과. ☀️ 🌑



밝은 색의 잎을 지니고 있으며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 음지의 포인트 식물로 매우 적합하다. 부식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하천이나 연못가에 심으면 늘어져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가을 단풍도 매우 아름다운 최고의 그라스이다. 번식이 늦은 단점이 있지만 군식 하거나 단일 식재해도 좋다.

우리꽃이 개발한 신품종 부처꽃

부처꽃 탐

큰무리를 이루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부처꽃 탐



▲ 일반 부처꽃

부처꽃은 일반적으로 냇가 또는 초원 등의 습지에서 자생하며 현재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수변식물로 재배되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이다.

생육이 강건해 특별히 생육환경을 가리지 않는 식물로서 특히 습기를 좋아하고 양지를 좋아해서 수변에서는 더욱더 그 자람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식물이다. 꽃 형태의 분홍색의 꽃은 여름 수변공간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한다. 왕성한 생육은 한번 자리를 잡게되면 다른 식물의 침범이 불가능하여 잡초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부처꽃 탐은 우리꽃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으로 기존 부처꽃보다

다 경관적, 형태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부처꽃이다.

부처꽃 탐은 잎이 크고 줄기도 두껍고 튼튼하여 단단한 느낌을 주며 쓰러짐이 없고 동시에 꽃대도 길고 풍성하여 식물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밝은 진분홍색의 큰꽃은 만개하면 마치 촛불이 환할 타오르는 듯 강렬한 화려함을 전달해준다. 큰무리를 이루면 분홍색의 꽃물결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수변에 대면적으로 군식해도 좋고 꼭 수변이 아니라도 넓은 공간에 군식해도 좋다. 그리고 다른 수변식물과 어울려 중간중간에 식재해도 좋다. 꽃이 워낙 크고 색깔이 좋기 때문에 혼합식재시에도 포인트식물로 활용이 가능하다.

생육이 강건한 식물이라서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혼합식재의 경우 꽃이 지면 깔끔하게 키핑해주는 것이 좋고 삼목으로 번식한다.

부처꽃 탐은 지금 출시를 시작하여 올 하반기 새로운 품종으로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

그라스정원용, 옥상용, 군식용으로

좀새풀

고슴도치 같은 깔끔한 품이 일품입니다.



▲ 좀새풀



▲ 무늬 좀새풀

좀새풀(Deschampsia caespitosa)은 화본과의 다년생식물로 줄기는 높이가 60cm 정도이며 잎은 오크라들기나 넓적하다. 6~7월에 꽃이 원주화시 피고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의 북부지방이나 제주도에서 분포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좀새풀 품종은 조성용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라스류로 섬세하고 조밀한 털같은 모양으로 원형의 작은 마운드를 이루면서 자라는데 볼

륨감이 풍부 녹색의 아름다운 질감에 질감을 가지고 있다. 꽃이 피면 가을에 단산처럼 눈부시기도 하다. 생육이 강하고 자람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늘한 계절을 좋아하며 건조에 조금 약한 면이 있다. 혹시 여름 고온, 건조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라도 가을이 되면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녹색의 질감이 좋기 때문에 군식해도 좋고 앞쪽에 라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그라스정원 또는 ARI가든을 조성할 시 앞쪽에 포인트 식물로 3~4포기 모아서 심으면 좋고 옥상용 소재로도 적극 추천할 만하다. 특히 상록은 아니지만 11월까지 녹색을 유지하기 때문에 늦가을에 ARI가든, 또는 화단을 조성할 시 시공 후 바로 어느정도 효과를 원할 경우에는 매우 좋은 소재로 활용가능하다.

형태적으로 잎이 짧고 컴팩트한 품종이 있고 잎이 길고 늘어지는 품종, 잎의 무늬가 있는 품종이 있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번식은 분, 가을로 분주하거나 삼목하면 되고 재배는 큰 화분이나 식생매트로 큰 포기로 재배하는 것이 현장에 적용할 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유리하다.

좀새풀 품종은 그라스정원, 옥상정원, ARI가든에 녹색의 아름다운 질감과 깔끔한 품이 일품인 소재로 새롭게 선보일 것이다. 🌿



숙근초를 이용한 교통섬 화단 조성

교통섬은 대부분 일년초 화단이 조성되어지고 계절별로 3~4회 교체해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사진에서 보는 영등포 영아C주변 교통섬도 매년 4회 일년초로 교체해주었던 화단이었는데 올 6월초에 숙근초를 이용하여 새롭게 조성하였다.

숙근초로 조성했을때 식재 후 교체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해줄 수 있도록 품목과 디자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차량이 이동하면서 보는 관점임을 고려하면서 장기개화종과 잎의 색깔이 좋은 식물들을 어울려 식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위 사진의 화단은 기다란 삼각형 모양의 2단의 교통섬으로 약 200평방미터의 면적에 삼색조팝, 황금조팝, 가우라 등 14종을 식재하였다. 기존의 포트를 이용하여 식재하면 약 2개월 정도가 지나 재배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조성한 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우리꽃에서 출시하기 시작한 식생매트를 이용하였다.

사진1은 삼각형모양의 앞쪽으로 분포시리죽은 잎의 색깔이 좋은 황금조팝을 이용하여 마무리 하였고 중앙

에는 6월과 7월에 각각 개화하는 수레동자와 에키나스노우를 혼성식재하여 주황색과 하양색이 어우러짐과 동시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옆쪽으로는 장기개화종인 노랑숙근코스모스, 튼튼 비단과 잎의 무늬가 좋은 무늬쑥부쟁이, 무늬금계국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꽃이 좋은 아스틸베는 화기가 짧은 것을 감안하여 사이사이에 꽃백합을 식재하여 꽃이 질때쯤 아름다운 꽃백합이 아스틸베 사이로 얼굴을 내밀게 하였다.

사진2는 뒤쪽의 넓은 면적부분으로 가장자리를 황금조팝으로 엄식하고 안쪽에는 삼색조팝을 군식하였는데 그 중앙에는 에키나를 식재하여 여름 한창 분홍색의 기품있는 꽃이 만발하고 있다. 삼색조팝 사이에도 꽃백합을 혼성식재하여 여름한창 시원한 꽃을 선보이고 있다. 2년으로 형성된 위쪽의 화단에는 가우라를 군식하여 6월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는 혼합식재, ARI가든, 그라스원 등 숙근초를 이용하여 새로운 패턴으로 교통섬을 디자인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품종의 화려한 덩굴식물

클레마티스

50종을 선보입니다.

꽃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품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벽면녹화(유인물 설치) 뿐만 아니라 가정원에 용으로 화분에 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특정 품종 또는 어떤 품종 군에 대해서 형태적, 생태적 특성, 조경소재로서의 적용, 번식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그 품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품종

원추리



영명으로 Daylily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루동안만 꽃을 피운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인데 현재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개량된 품종이 30,000여종의 재배변종이 있고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많은 종들은 하양, 노랑, 오렌지, 빨간색 등이 일반적인데 새로운 다양한 변종품종들은 어두운 보라색과 짙은 흑적색까지 다양하다. 아직 국내에서는 다양한 유색품종이 적게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아파트 등의 반음지 및 고급정원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원추리는 약간의 습기가 있는 장소에 적용하면 좋고 아파트 혹은 낙엽수림의 반음지에 식재하면 좋다. 그리고 화색이 다양해 고급정원의 연출에도 유용하고 생육이 대체로 강건해 어떤 지역에서도 잘 적응한다. 스텔라원추리와 같은 품종은 5월부터 서리가 올때까지 계속해서 개화하는 사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로용으로도 매우 좋다. 물론 우리꽃에서 개발중인 많은 종류도 사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곧 출시예정인 품종이 여러종 기대된다.

현장에서의 적용



1. 단독군식

도로변의 화단이나 또는 일반 정원에 군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길이가 긴 도로변에 사계성인 스텔라원추리를 식재하면 좋다.

2. 혼합식재

혼합식재시 키가 작은종(스텔라원추리)은 앞쪽으로 그 외 키가 큰 유색원추리는 중간쯤에 포인트로 식재하면 좋다.

3. 계류주변

습기가 있는 곳에도 잘 적응하므로 계류주변에 식재하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4. 품종원

많은 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추리 한 품종군만을 가지고도 다양한 색상과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식물원이나 화단에 품종원을 만들 때 좋은 소재이다.

품종소개



형태, 생태적 특성

원래 숲 가장자리 혹은 산악지대 및 강가 등의 물기가 있는 곳에 주로 나타나며 대개 군집을 이루며 왕원추리와 같은 품종들은 지하경을 이루기도 한다. 원추리는 보통 야생성 개화를 하는데 늦은 오후에 피었다가 다음날 오전 햇빛이 강해지면 점차 오므리는 특성을 가져 우리나라의 6월말 이후에 고온과 강한 햇빛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아파트 등 야간에 가로등이 있는 장소에는 매우 유용한 식물이고 최근의 품종은 개화기간이 늘어

16시간 이상 피는 종류가 많이 있어 다음날 새꽃이 피는 오후까지도 꽃이 좋은 품종이 개발되고 있고 숲 가장자리 혹은 오후에 직사광선이 없는 정원이나 아파트 화단 등에서는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원추리는 습기있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나 물이 고이는 배수불량의 토양은 좋지 않다. 너무 음지는 잎의 생육은 괜찮으나 꽃의 개화수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에 반나절은 해가 드는 정도의 반음지 이상에 심는게 좋다.

관리 및 재배방법

재배는 일반적으로 노지에 식재하여 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하거나 종자를 파종하여 육묘하여 노지에 식재하거나 포트에 이식한다. 관리는 생육이 강건하여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여름에 진딧물이 유난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꽃이 개발하는 신품종

우리꽃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는데 원추리류도 현재 여러품종을 선발하여 품종등록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꽃은 화려하나 원추리의 화기가 짧기 때문에 꽃이 장기개화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품종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고급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아파트, 골프장, 주택정원 등에 우리꽃이 개발한 원추리류가 선보이게 될 날이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다.



아름다운 가을햇살에 어울리는

파니쿨

무리를 지어 식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 1 매우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 2 잎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하얀 갈색의 줄기가 일품이다.
- 3 '헤비메탈'과 같은 품종은 잎이 파랑색으로 여름에도 고급스럽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지피식물의 강자 카펫주름잎

빠른 피복, 재생력이 뛰어납니다.



- 1 매트를 형성하는 식물로 화색은 하양과 보라색이 있다.
- 2 물기가 적당히 있는 곳을 좋아한다.
- 3 피복능력과 재생능력이 뛰어나 골프장의 저스지 등에 좋고 장마철 임시 물빠짐이 나쁜곳에 심으면 좋다.
- 4 양지를 좋아하지만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구입문의 : 031)712-7001,7119

경관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지피식물 뿐만 아니라 관목류도 매우 중요한 소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목으로 사용되는 소재가 매우 한정되어있다.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경관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관목소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우리꽃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화훼시장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해외의 유명 박람회, 가든센터, 식물원 등을 방문, 소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변화와 트렌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다양한 품종, 겨울상록 줄사철

다양한 잎색과 무늬는 음지를 밝혀줍니다.



줄사철은 상록관목성으로 음지 또는 벽면 부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소재이다.

양지에서 음지까지 잘 자라며 얇간의 물기가 있는 토양은 물론 메말라도 낙엽없이 쌓이는 곳이면 생육이 좋다.

일반적으로 지면으로 두껍자라는 특성이 있어 나무아래 등지의 음지에 지피식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 기근이 있어 벽면부착용으로 사용하기에 하나 자람이 늦어 벽면 차폐용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용벽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식물로 적용하기도 하나 이 또한 차폐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다양한 잎색과 무늬가 있는 품종이 많이 있어 양,음지에 지피식물로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양한 품종은 황금색, 은색의 무늬 등이 있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음지에 줄사철 품종만으로도 색감이 맞추어 디자인하면 음지를 밝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음지에 색감과 볼륨감을 주기위해서 줄사철 무늬 종 품종 한종류를 바탕으로 식재하고 수국, 호스타 등 음지에 잘 적응하면서 키가 있는 식물을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심으면 깔끔함과 더불어 경관적으로도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다른 지피식물에 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기에 아파트 등지의 비관리지역에 식재하면 좋고 특히 줄사철 미카엘라 등 새로운 품종은 잎의 무늬가 매우 좋아 아름다운 꽃 그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줄사철류는 내한성이 강해 서울에서도 상록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단지 겨울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단풍과 낙엽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을 막아주어야 한다.

주로 삼목을 통해서 번식하고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종은 생육이 강건하여 재배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다.

우리꽃 전시판매장 개장!!

300평의 면적에 500여종의 품종을 전시, 판매합니다.
다양한 숙근지피식물과 정원을 감상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구입문의: 031)634-7990

세계옥상녹화대회

우리꽃은 지난 5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세계옥상녹화대회' 및 '상해 엑스포'를 참관하였다. 세계옥상녹화대회는 상해 동대학에서 개최되었으며 해외의 옥상녹화 관련 대학, 업체와 정부에서 4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오해영 조경과장이 축사를 대독(오세훈 서울시장)하기도 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벽면, 옥상녹화와 관련된 각 국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이 많은 관심 속에 이어졌으며, 몇몇 중국 업체는 관련 자재들을 선보였다. 세계옥상녹화대회라고 하기에는 규모와 내용, 서비스에서 참가자들을 당혹케 할 만하였으나, 몇몇 발표는 눈에 띄었다. 세계 각 국가의 옥상녹화격려정책과 녹색빌딩과 옥상녹화, 벽체녹화, 옥상녹화신기술 (저근방수, 배수, 영양단체, 식물피복, 원립품종선택, 강우량수집, 정화, 이용)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중국의 벽면 및 사면 녹화 업체와 조정자재 업체들도 참가하여 제품을 열띤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The Green Roof Consultancy의 캐리 그랜트씨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전면에 수직정원을 설치한 사례로 발표를 하였다. 주택가와 쇼핑센터 사이에 설치하여 개인의 사공간을 보장하면서, 흙물스러울 수 있는 공간을 아름답고,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녹화한 사례로 많은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프랑스관
전면의 전면을 기하학적인 선형의 벽면녹화로 디자인하였다.



인도관
세련된 곡선 디자인을 강조한 벽면녹화를 선보였다.



서울시 오해영 조경과장의 축사



'우리드림'이 꿈꾸게 하는 우리의 미래

지금 우리꽃의 이전 본사에는 우리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다.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우리드림 1(sunset), 우리드림 4(red rain), 우리드림 7(pink ribbon)을 비롯한 우리드림 시리즈가 신설 육묘장을 채우고 있으며, 외부 노지에는 작년에 분리 고정된 코레움시스의 새로운 품종들이 줄을 맞춰 심겨져 우리꽃 연구원들의 손길에 피어나고 있다. 또한 상록잔디패랭이를 선두로 시작된 패랭이 신품종 시리즈들도 줄줄이 개발되어 새로운 이름을 기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우라, 아이리스, 아스타, 캄파놀라, 데이릴리, 후록스 등 다른 속 식물들의 신품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름만 듣고, 우리나라의 좋은 자생식물을 두고 해외 품종들에 열을 올리나 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름을 바꿔보자. 꽃창포, 제비꽃, 섬초롱꽃, 별개미취, 해국, 원추리, 꽃잔디와 같은 우리나라 이름도 있다. 우리꽃이 개발하는 신품종은 단순히 우리 땅의 유전자원을 보급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화시킨다는 의미를 두어야 한다. 유전자원은 '보유'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꽃은 중소기업부산연구소가 2006년도에 설립하여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매해 연구개발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올해는 정식으로 연구소 인증을 받고, 품종등록신청 건수도 대대 증가하여 작년에는 10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3건 등록신청을 하였다. 산체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야생화 시장을 저편하고 우수한 농가 생산 보급으로 바뀌어 놓았고,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조정식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별개미취, 섬초롱꽃의 신품종이나, 백두산 등지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우리 유전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중 해외에서 리브콜을 받는 우리의 신품종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Coreopsis rosea*라는 도입종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 조정식물의 신품종을 가장 많이 개발한 회사는 바로 다음아닌 우리꽃이다. 다양한 화색의 스펙트럼과 화형, 사이즈 등 20 품종 이상을 개발하였고 더욱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노리고 있다.

2002년 UPOV 가입 이후, 아니 1997년 IMF 당시 다국적 종자 개발 회사들이 우리나라 종자



▶2009년 가을 일본하쿠산에서 시험재배하는 모습



▶2010년 봄 수출용심수 재배



▶우리드림 수출용 심수 커팅하는 모습

시장을 점령한 이후, 아니 좀 더 거슬러 올라가 1940, 50년대부터 우리나라 식물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반도를 싹 훑은 이후 우리나라에 꽃피우는 꽃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다국적 종자 개발 회사에 의한 종자시장 점령은 토종유전자의 유출과 함께 그 부가가치까지 넘어갔다. 국내시장을 넘어서 범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종자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방어적인 로얄티 작품 개발에 넘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신품종 개발에 있다.

이미 주요 원예작물의 로얄티 지급액이 연간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화훼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로얄티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로얄티분쟁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종자가 아닌 식물체를 영양번식하는 작물은 농가와 품종육성자나 대행사간의 로얄티 분쟁이 예민한 사항으로 떠오르며, 특히 외국에서 개발한 화훼류에서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화훼류의 경우 품종보호 등록을 신청한 외국업체는 846건에 이르고 있으나 종자판매가 대부분인 채소와 과수의 경우 등록된 외국업체는 1건에 불과하다. 로얄티 작물을 무단으로 증식한 사실이 밝혀지면, 보호권을 가진 회사에 이익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와 수출 계약을 맺은 하쿠산사는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품종보호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품종만 계약을 하였다. 또한, 일본 내 판매하는 다양한 신품종들이 외부 농가에 의해 무단으로 증식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인 시장조사를 하여, 인증받은 라벨을 사용하느라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품종을 무단증식하는 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방어태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하는 화훼류 개발 민간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남의 일처럼 쉽게 생각하고, 로얄티를 부가적인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꽃의 우리드림을 유럽농가에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증식하여 유럽시장에서 이득을 취한다면, 우리나라 사립이라든가 분개하지 않겠는가? 화훼류는 채소나 과수와 달리 유행성이 강해 품목별 형태나 색깔 등의 유행속도가 짧은 주기로 변화하는 등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오랜 기간 기술이 축적된 민간회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개발 품종이 많지 않다.

우리꽃은 세계로 뛰어든 최초의 국내민간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UPOV 도입 10년이 되는 2012년에는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세계시장을 우리시장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한다. 우리꽃의 경우도 일본에 수출된 코레움시스는 일본 내에 품종보호등록을 하여 로얄티를 보호받고 있다.

현재 수출액은 매출액 대비 미미한 실정이지만, 일본을 시작으로 유럽에서도 리브콜을 받고 있으며 곧 유럽의 농가에서도 우리꽃이 만발할 날이 멀지 않았다. 로얄티 수출 대국의 꿈을 안고 오늘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우리드림 시리즈



▶ 우리드림1



▶ 우리드림3



▶ 우리드림4



▶ 우리드림5



▶ 우리드림7



▶ 우리드림8

우리꽃 따라잡기

우리꽃 따라잡기에서는 다양한 조경 식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한 조경식물의 재배 관리와 재배 환경을 이해하고, 조경식물을 식재에 알맞게 적용하는 법과 우리꽃 품종을 포함한 다양한 조경식물군의 식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편집자주 -

9 식물의 증식(종자번식)



식물의 증식

자연에서 식물은 안전하게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고 있고 가능한 생존력이 강한 후손을 많이 남기도록 진화하여 왔다. 한편 상업적으로나 생활원예에의 이용에서도 개체수를 늘리는 증식 기술은 모든 재배 기술에 우선된다. 번식은 종자번식(유성번식)과 영양번식(무성번식)으로 나누며 체소는 주로 종자로, 과수는 영양 번식으로, 화훼는 초화류는 종자로, 화목류 속근초류는 영양번식을 주로 한다.

대부분 종자는 충분히 익자마자 뿌리는 것이 가장 좋다. 필요하다면, 열매째로 물에 담근 뒤, 종자를 빼서 말린다. 껍질이 두꺼운 종자는 발아 전에 물에 불리거나 껍질을 까는 것이 필요하다. 10분에서 72시간까지 중에 따라 끓인 물에 담그기도 한다. 작은 씨앗은 깔 때는 연마 종이에 묻히고, 큰 종자는 갈로 벗긴다. 어떤 종자는 휴면을 깨기 위해서 저온처리기간이 필요하다. 저온인 상태에 뿌려두거나, 겨울에 추위에 노출되도록 상자를 열어놓는다. 반대로, 비닐 봉지 안에 축축한 상태로 두어야 할 때도 있다. 3,4월 동안 따뜻하게 한 뒤에 냉장고에 1~5℃정도로 둔다. 종에 따라 3~18주 뒤에 뿌린다. 종자는 연한 재배할 정위치에 뿌리거나, 트레이나 종자베드에 뿌린다. 아주 작은 종자를 빼고는 얇게 흩이나 퇴비로 덮는다. 대부분은 최소 5℃이상에서 발아한다.

종자번식

종자로 번식한 묘를 싹생묘(seedling)라고 하며 이러한 번식법은 싹생 번식 (유성 번식: sexual propagation)이라고도 한다. 일년초와 속근초, 구근류, 화목류를 증식하거나 품종개량할 때 사용한다. 과수의 접목시 대목양성 등의 경우에 이용된다. 자연 상태에서 종족을 보존하는 수단은 거의가 종자 번식이지만 화훼에서는 품종의 형질을 그대로 연속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번식을 많이 한다.

종자는 불량 환경을 극복하고 번이를 정중하며 꽃가루와 함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진화과정에서 생존 경쟁과 영역확장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정방식에 따라 자가수정과 타가수정으로 구분하며 많은 화훼류는 타가수정 배리골드 벚나 배코니아 페튜니아를 하지만 자가 수정하는 류 중에는 5~79%의 교잡율을 보이는 부분 자가수정 (급여초 살비아 과꽃)하는 식물도 있다.

• 종자번식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대량번식이 쉽고 영양번식한 묘에 비하여 수명이 길고 생육이 왕성하다. 한편 초형 및 수형이 좋아 상품성이 뛰어나다. 우수한 신품종의 육성이 가능하고, 병충해에 강하며, 저장 및 수송이 안전하고,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으로는 형질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의 개체가 나와서 타가수정 화훼류는 품종의 형질고정이 안되며 목본의 경우 개화까지 장시간 소요 되고 임성이나 단위결과종자는 종자를 얻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화단용 초화류는 거의가 종자번식을 한다.

• 종자의 선택

채종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선한 종자로서 순도와 발아력이 높고 품종이 확실한 종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종자의 저장은 저온(5~10℃), 건조(50%)상태에서 저장한 종자가 발아력이 좋다.

종자의 발아

종자는 성숙과 휴면타파 등의 내적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적당한 수분, 광선, 온도 등의 외적인 조건이 주어지면 발아하게 된다.

발아할 때 광선이 필요한 종류와 필요하지 않은 종류, 그리고 광선과 관계가 없는 종류가 있다.

온대지방이 원산지인 식물들은 15~20도, 한대지방 원산 식물들은 그보다 낮은 10도 전후 열대식물들은 그보다 높은 25~35도의 온도 범위에서 발아한다.

종자가 물을 흡수하면 종자 내에서 발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이 활성화되고 저장 양분은 당으로 변하게 된다.



• 산소

호흡에 필요한 요소로서 발아가 진행중일때는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종자 껍질을 연화시켜 주거나 상처를 줌으로 산소 공급이 가능해져서 발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 종자의 휴면

발아는 비휴면상태여야 발아가 된다. 휴면의 원인은 종피에 원인인 경우와 내부에 원인경우가 있다. 종피원인은 두가지가 있는데 종피가 딱딱하여 휴면하는 경우와 신인장갈이 종피에 발아억제물질이 있어 휴면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채종시 종자가 온전한 것으로 보이나 미발달하여 후숙을 요하는 것도 있다(예 볼루레나무, 만나무).

호르몬중에서 ABA등 발아억제하는 휴면물질이 있는 경우는 저온처리를 하거나 GA를 침지하여주면 휴면이 타파된다.

파 종

접파, 산파, 조파, 직파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최근성으로 이식을 실시하는 양귀비나 콩과 식물들은 직파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식물들을 위하여 지피 포트에 파종하여 직접 정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플러그류이다. 한편 상나나 하본에 파종을 할 때는 산파 또는 조파를 하게 된다.

파종용토는 배해층의 감염이 없고 잡초가 없는 것이어야 하겠고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CEC)이 있는 배지여야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배지로는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질석)가 있으나 모래 흙 등도 쓸 수 있다. 일반 흙을 쓸 때에는 토양소독을 한다.

파종 후 토양수분 유지가 중요하며 차광하여 직사광선에 들지 않도록 하고 고온 다습을 입고병(damping off)이 많이 발생되니 고온 다습을 피하고(환기, 차광) 70% 발아시 차광을 점차 제거하여 경화시키고 살균제를 뿌려준다. ☺

